

2013. 2. 21  
(13-015호)

# KB daily 지식 비타민

: 국내 자영업자 부채현황

- 자영업자 부채규모
- 자영업자 대출 분류
- 자영업자 부채부담 분석
-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현황

## ■ 자영업자<sup>1</sup> 부채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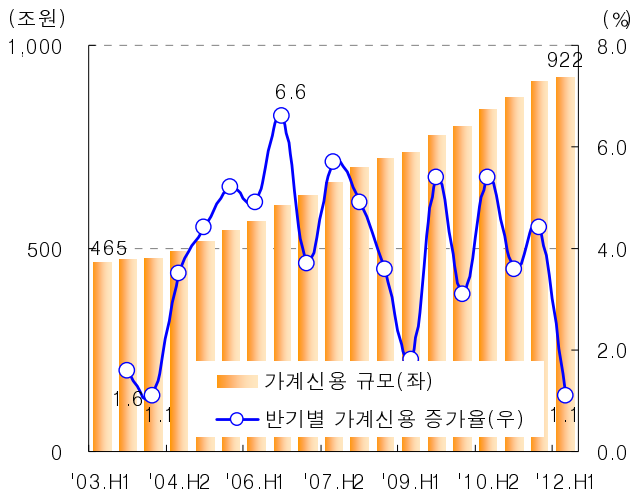
○ 2012년 국내 가계신용 증가율은 신용카드 부실사태(2003년) 이후 최저 수준

- 국내 가계신용은 2011년 말 912조원에서 2012년 6월말 현재 922조원으로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약 1.1%<sup>2</sup> 증가에 그치면서, 반기단위로는 카드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
-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(2011.6.29) 및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(2012.2.27)의 영향으로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2012년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각 0.4%, 1.8% 증가에 그침
-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,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영업자와 저소득 가계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특정부문의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

○ 2012년 3월말 국내 자영업자의 총 부채규모는 약 429조원<sup>3</sup>으로 추정(한국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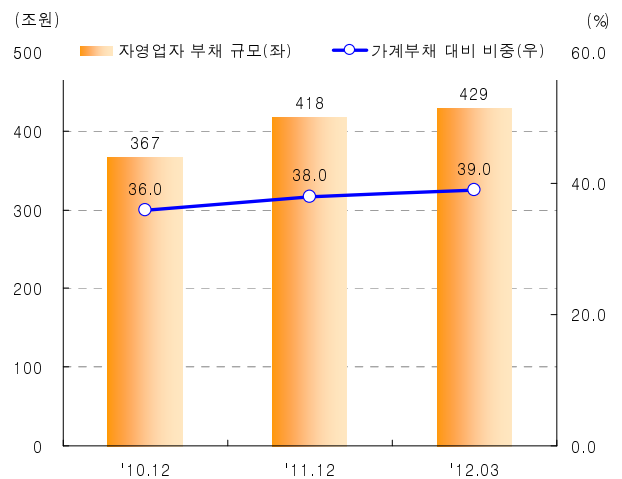
- 최근(2011년 1월~2012년 3월) 자영업자 총 부채는 16.9% 증가하여, 동 기간중 전체 가계 부채 증가율(8.9%)을 크게 상회

[그림 1] 가계신용 규모 및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  
주: 가계신용기준(전기말 대비)

[그림 2] 국내 자영업자 부채규모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  
주: 민간(가계 및 비영리단체) 금융부채 대비 비중

<sup>1</sup> 스스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자연인으로서 통상 피용자가 아닌 스스로 고용된 자(self-employed)를 지칭하며, 통계청 고용통계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구분  
<sup>2</sup> 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2012년 6월말 현재 1,121조원으로 2011년 말(1,103조원) 대비 1.6% 증가  
<sup>3</sup> 한국은행(2012.10)은 차주의 직업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7개 국내은행(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, 외환, 한국스탠다드차타드, 중소기업은행 등)의 계좌별 대출정보, 신용정보회사 데이터, 금융회사 업무보고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자영업자 부채규모(2012.3)를 429조원 내외로 추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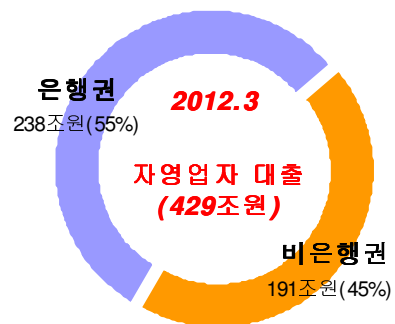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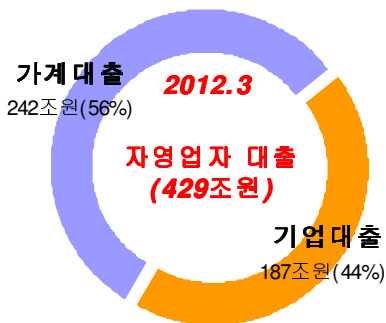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소득여건 악화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은퇴 후 창업활동 증가로, 사업체 운영자금 및 생활자금, 창업자금 등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부채규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임
- 자영업 대출규모 뿐 아니라 가계부채<sup>4</sup>(자금순환통계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) 중 자영업 대출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임
  - ※ 가계부채 중 자영업 대출 비중: 36%('10.3) → 38%('11.3) → 39%('12.3)

■ 자영업자 대출 분류(2012.3)

- 여신종별로는 2012년 잔액기준 자영업자 대출(429조원<sup>5</sup>) 중 242조(56%)가 가계대출이며 나머지 187조(44%)는 기업대출로 취급
- 용도별로는 자영업자 대출의 64.8%가 운용 및 투자 목적이며, 주택관련 목적은 24.4% 비중
- 금융기관별로는 자영업자 대출 중 은행권에서 취급한 규모는 238조원(55%)이며, 비은행권 취급규모는 191조원(45%)

[그림 3] 여신종별 자영업자 대출

[그림 4] 금융기관별 자영업자 대출



자료: 한국은행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KB 경영연구소

<sup>4</sup> 자영업자 부채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, **채무상환 관점**으로 법인기업과 달리 최종적인 부채상환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, 기업부채보다는 가계부채 성격이 더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. 반면, 금융회사 회계처리는 **용도별 구분**을 기준 삼아, 생활 자금용 대출은 가계대출로 취급하고, 사업 자금용 대출은 기업대출로 계리. 따라서, 기준에 따라 대출 집계치 상이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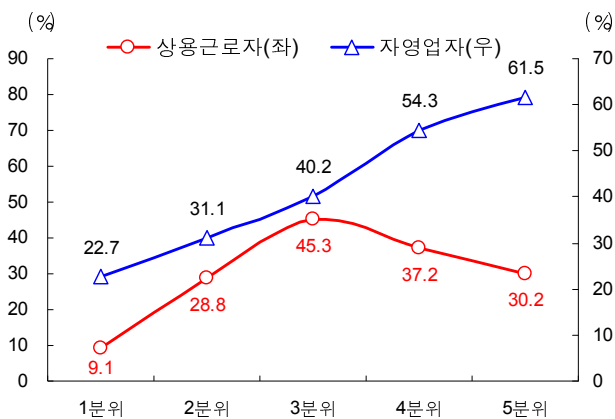
<sup>5</sup> 자영업자 부채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한 규모 및 용도 파악이 어려우며, 본고에서 소개한 한국은행 추정치(429조원, '12.3월) 이외에 대표적인 추정방법과 추정치(KIF, 한은, KCB)는 아래와 같음

- ① 2011년 가계금융조사 중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, 통계청의 자영업자 수, 자금순환표의 금융부채 대비 대출금 비중을 활용하여 추산한 경우: 337조원('11.3월) → **345조원**('12.3월)
- ② KCB 표본의 자영업자 평균 대출금, 통계청 자영업자 수, KCB 자영업자 표본 중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 비중을 활용하여 추산한 경우: 360조원('11.3월) → **367조원**('12.3월)
- ③ KCB 표본에서 전체 대출금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, 자금순환표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대출금 잔액을 활용하여 추산한 경우: 294조원('11.3월) → **323조원**('12.3월)

### ■ 자영업자 부채부담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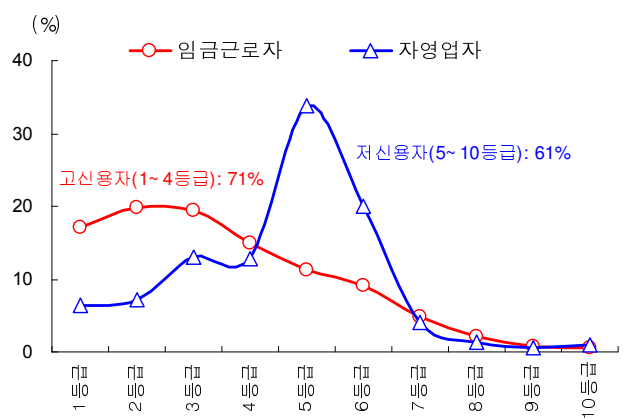
- 2011년 기준,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은 임금근로자 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
  - 2011년 기준,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규모는 95백만원<sup>6</sup>으로 임금근로자 46백만원에 비해 두배 가량 상회
  -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19.1%로 임금근로자 125.8%를 크게 상회
  -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22%로 임금근로자의 67%를 두배 가까이 상회
  - 자영업자의 DTI 비율은 29.1%로 임금근로자(18.1%) 보다 높은 상환부담
    - ※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DTI 비율: 28.0%(2011년 가계금융조사)
- 금융부채를 보유한 자영업 가구 중 과다채무가구<sup>7</sup> 비중은 14.8%로 임금근로자 (8.5%) 보다 높은 수준
  - 상용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 3분위에서 과다채무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, 자영업자의 경우, 소득이 높을수록 과다채무가구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
- 부채보유자 신용등급의 경우, 임금근로자는 4등급 이상에 다수 분포(71%)한 반면, 자영업자는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(61%)이 높아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
- 부채보유자의 연령별로는, 자영업자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많은 반면, 임금근로자는 30~40대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
  - 일반적으로 고연령층 일수록 소득창출 및 지속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

[그림 5] 소득분위별 과다채무가구 비중



자료: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KIF

[그림 6] 신용등급별 자영업자 대출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

<sup>6</sup> 2011년 가계금융조사 기준(통계청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 공동조사)

<sup>7</sup> 과다채무가구: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이 40%를 초과하는 가구



-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, LTV 60%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27.6%로 임금근로자(13.3%) 비중을 크게 상회
  -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(83.0조원)이 담보대출의 대부분(80.9%)을 차지하여 LTV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

[표 1] 자영업자 기업대출(은행권)의 담보형태별 잔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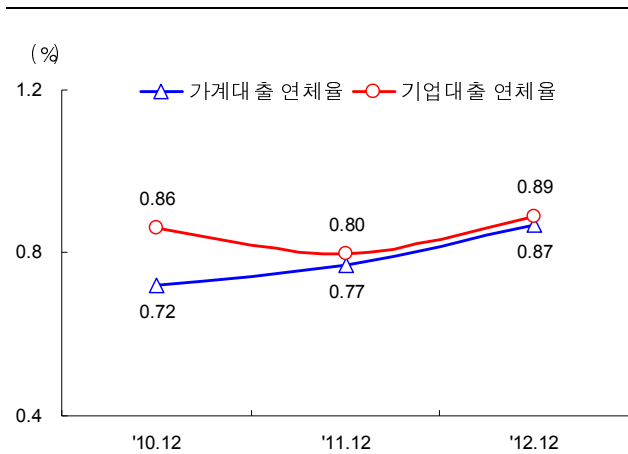
구분	'09년	'10년	'11년(A)	'12년(B)	비중('12)	증감(B-A)
담보	77.8	80.5	91.1	102.6	59.2%	11.5
부동산	74.7	77.5	87.7	98.7	56.9%	11.0
(주택)	13.9	13.7	14.7	15.7	9.1%	1.0
(기타부동산)	60.8	63.8	73.0	83.0	47.9%	10.0
보증	21.2	22.5	22.5	22.9	13.2%	0.4
신용	41.3	42.6	44.9	48.0	27.6%	3.1
<b>합계</b>	<b>140.3</b>	<b>145.6</b>	<b>158.4</b>	<b>173.5</b>	<b>100.0%</b>	<b>15.1</b>

자료: 금융감독원(각 기말기준) / 단위: 조원, %

### ■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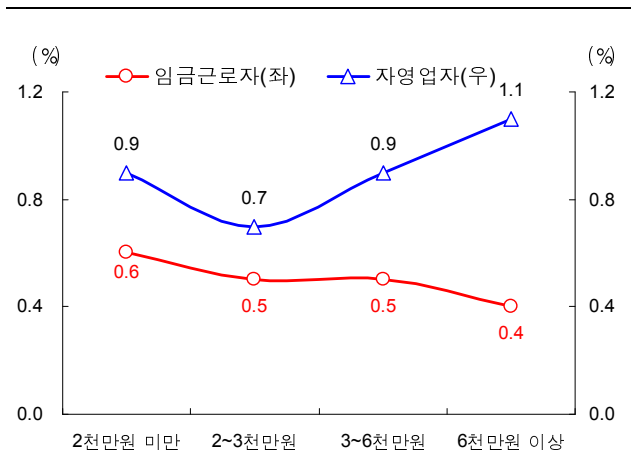
- 은행권<sup>8</sup>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,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모두 전년 대비 연체율 상승
  - 2012년말, 자영업자 대출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.87%이며, 기업대출 연체율은 0.89%
- 임금근로자의 경우, 저소득 차주일수록 연체율이 높았으나,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차주가 저소득차주에 비해 더 높은 연체율<sup>9</sup> 기록 <그림8>

[그림 7] 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 추이



자료: 금융감독원

[그림 8] 소득구간별 연체율 현황



자료: 한국은행(가계대출 기준, 2012.3)

<책임연구원 유정완(jungwan.you@kbf.com) ☎ 5749>

<sup>8</sup> 자영업자 대출 중 비은행권 연체율 제외

<sup>9</sup> 국내 4개 은행(국민, 우리, 신한, 한국스탠다드차타드)의 계좌별 가계대출정보(1,300만건) 기준